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

| | | | | | | | |
|------|---------------|---|-----|-----------------|-----------------|-------------|----------------|
| 문서번호 | 의회사무국-15519 | 결 | 주무관 |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의회사무국장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 보존기간 | | 재 | | | | | |
| 결재일 | 2025. 11. 14. | | 구보혁 | 김지협 | 이영관 | 조만재 | 안강일 |
| 공개여부 | | | 협조 | | 주무관 김숙영. | 의정팀장 김광희 | 의회사무과장 맹주익 |

2025년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11.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

- 일본(삿포로, 도쿄) -

2025년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11.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 출장국: 일본(삿포로, 도쿄)
- 출장목적
 - 설해 대책, 재난 및 재해 대응 역량 및 위기관리 노하우 벤치마킹
 -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 복합개발 및 도시 활력 제고 정책 방향 제시
- 출장기간: 2025. 10. 27.(월) ~ 10. 31.(금) 【4박5일】
- 보고서 작성자: 공무국외출장 단장 황금석
- 출장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비고 |
|-----------|-------------|-----|----|-----------|
| 도시건설위원회 | 위원 | 황금석 | 남 | 단장(답사 총괄) |
| 행정교육위원회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안광림 | 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종환 | 남 | |
| 행정교육위원회 | 위원 | 이덕수 | 남 | |
| 도시건설위원회 | 위원 | 고병용 | 남 | |
| 행정교육위원회 | 위원 | 김장권 | 남 | |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 위원 | 서희경 | 여 | |
| 도시건설위원회 | 위원 | 박주윤 | 여 | |
| 행정교육위원회 | 부위원장 | 추선미 | 여 | |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 위원 | 이영경 | 여 | |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 위원 | 민영미 | 여 | |
| 경제환경위원회 | 위원 | 김보미 | 여 | |

[목 차]

| | |
|--------------------------------|----|
| I . 출장개요 | 1 |
| □ 출장배경 | 1 |
| □ 주요일정 | 1 |
| □ 출장비 집행금액 | 2 |
| □ 출장국 일반현황 | 2 |
| II . 주요 출장내용(시사점 및 적용방안) | 4 |
| □ 삿포르 | |
| ○ 모에레누마 공원 | 4 |
| ○ 삿포르시 건설국 눈대책실 계획과 | 8 |
| ○ 삿포르시 위기관리국 위기관리과 | 11 |
| □ 도쿄 | |
| ○ 국토교통성 에도가와 하천사무소 | 15 |
| ○ 도쿄도청 건설국 하천부 | 20 |
| ○ 아크, 롯본기, 아자부다이 힐즈 | 24 |
| ○ 국회의사당 | 32 |
| III . 총평 | 36 |

※ 첨부자료: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출장배경

- 성공적인 도시 기반시설 및 재난 관리 정책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일본 삿포로와 도쿄의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성남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일정

| 일자 (요일) | 지역 | 교통 | 주요일정 |
|-------------------|--------|------------|--|
| [1일차] 10/27(월) | 인천→삿포로 | 항공 전용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 ○ 신치토세 공항 도착 ○ 모에레누마 공원 |
| [2일차] 10/28(화) | 삿포로 | 전용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삿포로시 건설국 눈대책실 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및 눈 활용 사례 - 제설 작업 노하우 및 제설 장비 운영 사례 논의 ○ 삿포로시 위기관리국 위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폭설, 테러 등 다양한 재난 대비 시스템 탐방 - 시민 대상 방재 교육 및 훈련 벤치마킹 |
| [3일차] 10/29(수) | 삿포로→도쿄 | 항공 전용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치토세 국내선 이동 ○ 국토교통성 에도가와 하천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타마의 저류시설 ‘수도권 외곽 방수로’ - 세계 최대 규모의 배수 시스템 탐방 |
| [4일차] 10/30(목) | 도쿄 | 전용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 건설국 하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홍수 대비 및 치수 관리 기술 탐방 - 지속가능한 하천 정비시스템 벤치마킹 ○ 아크 힐즈, 롯본기 힐즈, 아자부다이 힐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의 대표적인 도시재생프로젝트 사례 탐방 |
| [5일차] 10/31(금) | 도쿄→인천 | 전용버스 항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시스템 선진사례 탐방 ○ 나리타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 집행금액

| 구 분 | 소요예산(원) | 산출내역 | 비고 |
|--------------|-------------|---|----|
| 총계 | 46,663,580원 | | |
| 의정운영 공통경비 | 10,156,010원 | - 통역비 = 1,691,010원 - 차량임차비 = 8,465,000원 | |
| 국외여비 | 36,507,570원 | - 항공료 = 12,603,600원 - 준비금(보험료) = 428,450원 - 체제비(여비) = 23,475,520원 | |

□ 출장국가 일반현황

○ 일본

| | | |
|------|-----|--|
| 일반현황 | 국 명 | 일본국(日本, JAPAN) |
| | 국 기 |  |
| | 수 도 | 도쿄(東京, Tokyo) |
| | 면 적 | 377,975km ² |
| | 영 토 |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주요 4개 섬과 기타 작은 섬들로 구성 |
| | 기 후 | 사계절이 뚜렷한 해양성 온대 기후 |
| | 인 구 | 1억 2,380만 명 (2025년 4월 기준) |
| | 언 어 | 일본어 |

| | | |
|---------------------|----------------|---------------------------------|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 | 국가원수 | 천황(나루히토) |
| | 총리대신 | 다카이치 사나에 |
| | 의회 | 양원제(참의원, 중의원) |
| 경제 현황 (2024년 기준) | 경제성장률 | 0.1% |
| | 국내총생산 (GDP) | 4조 260억 달러 |
| | 1인당 GDP | 52,713 달러 |
| | 물가상승률 | 2.7% |
| | 실업률 | 2.5% |
| | 수출액 | 107조 913억엔(역대 최대) |
| | 관광수입 | 74조(한국의 3배) |
| | 외국인 관광객수 | 3,687만 명(역대 최대) |
| | 주요산업 | 자동차, 철강, 전자·반도체, 기계·정밀장비, 관광 산업 |
| | 한-일 수교 일자 | 1965년 12월 18일 |
| | 한-일 교역 규모 | 772억 달러 |

※ 자료출처: KOTRA 국가지역정보

II 주요 활동(시사점)

□ 모에레누마 공원

-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장소를 재생시켜 만든 친환경 공원
- 환경예술가 이사무 노구치가 설계한 대표적 예술 공공공간이며, 예술과 자연, 도시 공간이 융합된 독특한 개념의 “전체가 하나의 조각 작품” 인 공원
- 친환경 조경·에너지 절약형 시설관리 체계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 방문일시: 2025. 10. 27.(월) 15:00 ~ 17:00
- 방문장소: 모에레누마 공원(삿포로시 하가시구)
- 목 적
 - 환경친화적 도시공원 조성사례 벤치마킹
 - 시민 참여형 공공공간 운영사례 조사
 - 예술과 도시환경의 융합사례 연구
- 면 담 자: 토가시 히데미(사업3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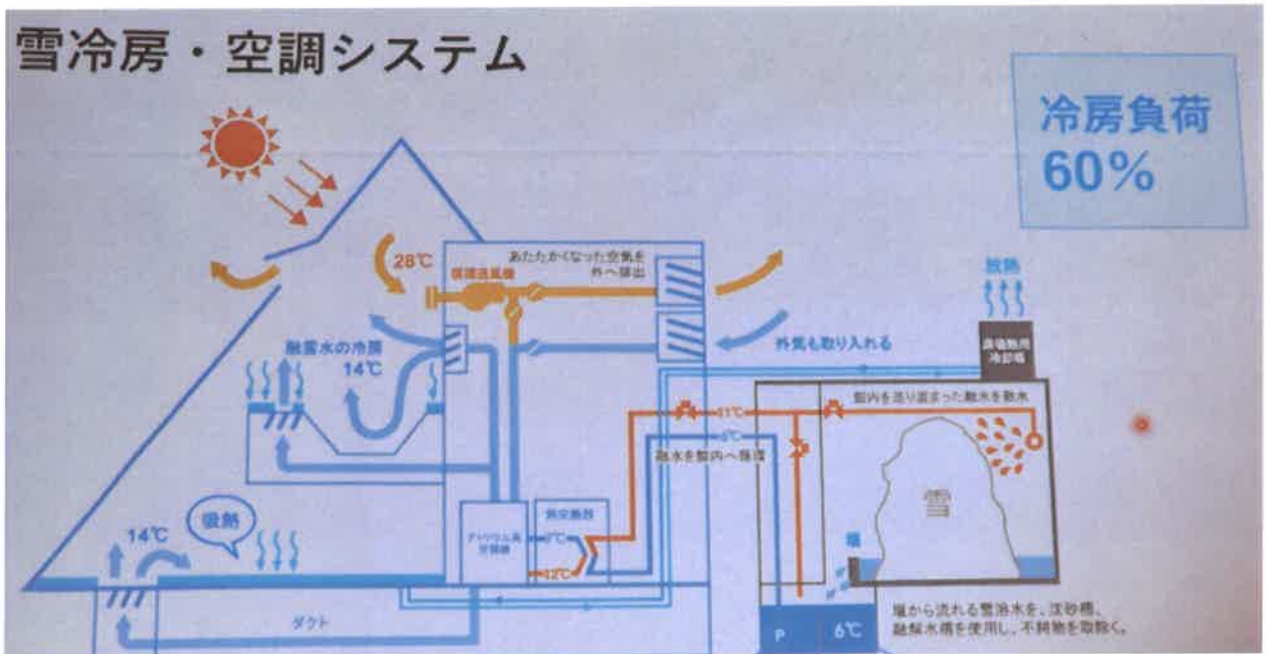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미국계 일본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가 설계한 모에레누마 공원은 삿포로시 북동부의 폐기된 쓰레기 매립장을 예술과 환경이 공존하는 대규모 공원으로 재생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임.
- 삿포로시는 공원을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거점이자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는 유리의 피라미드(Glass Pyramid), 모에 산, 수계시설, 조각작품, 자전거도로,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휴식 기능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의 복합 이용이 가능하다.
- 모에레누마 공원의 유리 피라미드는 고단열 복층유리를 적용한 비정형 피라미드형 2층 구조의 건축물로, 높이 32.3m, 변 길이 51.2m이며, 36mm 두께의 복층 강화유리에 내부 필름을 부착하여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부속 건축물은 철골 구조의 3층 건축물로서 높이 20m, 폭 18m×22.6m 규모이며, 외벽은 스테인리스 패널을 사용하였다.
- 유리 피라미드 외기 냉방 시스템은 자연 및 기계 환기를 통해 외부의 낮은 기온을 실내 냉방에 활용함으로써 전체 냉방 부하의 약 10%를 절감하는 기본적 자연형 냉방 방식이며, 바닥 흡열 시스템은 아트리움 석재 바닥에 냉수를 순환시켜 바닥 면에서 실내 열을 직접 흡수·저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전체 냉방 부하의 약 30%를 담당하는 주요 냉방 설비이다. 마지막으로 눈냉방 공조 시스템은 동절기에 확보·저장한 적설을 냉열원으로 활용하여 하절기 공조에 적용함으로써 전체 냉방 부하의 약 60%를 대체하는 핵심 저탄소 냉방 시스템이다.

- 공원 내 주요 시설은 태양광 발전 및 자연채광 구조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형으로 운영되며, 계절별 축제·음악회·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민 자원봉사 참여, 지역 예술가 협력, 친환경 조경관리 (잔디 재활용, 저비용 유지관리) 등 지속가능한 운영방식을 도입하였다.

※ 눈 냉방 공조시스템



○ 시사점

- (환경재생형 도시공원의 성공적 모델) 폐기된 매립지를 친환경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모에레누마 공원은 환경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환경정화와 예술·문화가 결합된 공원 조성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줌.
- (시민참여 중심의 공원 운영체계) 삿포르시는 공원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 자원봉사자와 지역단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자 스스로 관리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이 가꾸는 공원으로 발전함.

- (예술·문화·환경의 융합적 공간 설계) 예술적 디자인과 조형미를 도시 경관에 접목하여 공원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문화예술 거점이자 관광명소로 기능하며, 예술을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은 도시의 미적 가치와 관광 경쟁력을 제고함.
- (성남시 활용방안) 성남시는 모에레누마 공원 사례를 참고하여 유희 부지와 폐산업시설을 친환경적·예술적으로 재생하고,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도를 확대하며,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융합 공원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형 설계와 저비용 조정 관리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원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진



□ 삿포로시 건설국 눈대책실 계획과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겨울의 도로환경 실현
- 눈 대책 계획 수립 및 도로 제설 추진
- 제설 장비 및 기계 관리 담당

○ 방문일시: 2025. 10. 28.(화) 10:00 ~ 11:00

○ 방문장소: 삿포로시청(삿포로시 주오구)

○ 목 적

- 대설도시 삿포로시의 체계적 눈대책 추진체계 조사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제설·제빙 효율화 방안 파악
- 지속가능한 겨울도시 관리 및 시민참여형 제설정책 분석
- 예산절감 및 인력운영 효율화 사례 연구

○ 면 담 자: 이와쿠라 도루(계획과 조정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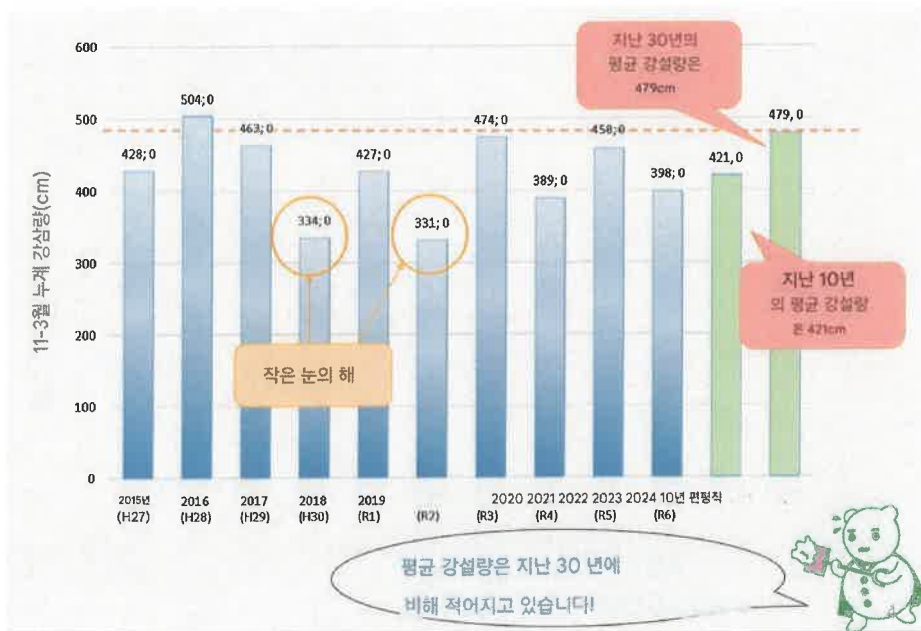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삿포로시는 도심과 생활도로를 구분하여 구역별 제설 계획을 수립하고, ICT와 GPS를 활용한 제설차량(800여대) 관리로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시 전역에 눈처리장을 분산 배치하고 덤프트럭 운행거리 최적화 등으로 제설 후 눈의 수송·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막대한 제설예산(2025년 예산: 258억엔≒2,700억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간 위탁과 인력분담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제설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조직과 기업,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형 제설 활동을 통해 시민주도형 눈대책 문화를 조성 노력.
- 아울러, 제설 차량 위치추적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 도입, 작업일보 등 전산화를 통한 제설 작업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설 차량에 카메라 및 센서 장착을 통한 안전 확보 등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음.

○ 시사점

- (데이터 기반 제설관리의 중요성) 삿포로시는 ICT와 GPS 기반의 제설 차량 운영 및 노선 최적화를 통해 제설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 스마트 기술 도입이 제설정책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줌.
- (시민참여형 협력체계의 효과) 주민조직,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형 제설활동(제설기 대여 및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며,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발휘
- (예산·인력 운용의 효율화 필요성) 민간위탁과 지역별 인력 분담을 통해 비용과 인력을 최적화하는 방식은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안정적인 제설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참고 사례가 되며, 눈 처리장 및 융설 시설의 전략적 배치는 제설 후 눈 처리 비용과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기후변화 대응형 제설 정책 필요)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장기 계획을 통한 유연한 운영 사례는,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도로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삿포로시 강설량



- (성남시 활용방안) 스마트 제설관리 시스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기업·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설 예산과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임시 적설장 등 눈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폭설 및 기온 급강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장기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겨울철 도로관리와 제설 정책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할 수 있다.

※ 투설구 설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빗물받이를 개선하여 주변의 눈을 하수도 관로에 투입 처리.

아울러,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이물질 퇴적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시 신속한 개방을 통해 원활한 배수 가능



○ 주요 사진



□ 삿포로시 위기관리국 위기관리부 위기관리과

- 위기관리국의 조직구조와 재난 대응 체계
-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 지역사회 협력 및 시민참여

○ 방문일시: 2025. 10. 28.(화) 11:00 ~ 12:00

○ 방문장소: 삿포로시청(삿포로시 주요구)

○ 목 적

- 지진, 폭설, 태풍,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재해 발생 시 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 절차, 역할 분담 등의 업무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재조직 운영 사례
- 폭설 시 눈 대책실과 연계 체계

○ 면 담 자: 나카지마 와타루(방재정보 담당계장)

○ 주요내용

- 삿포로시 위기관리국은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 재난유형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위기 발생 시 본부 중심의 지휘 체계하에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군, 경찰, 가스 통신 등 인프라 사업자의 인력 파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특히 위기관리과는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삿포로시는 197만 명이 거주하는 정령지정도시로 겨울철 폭설과 지진·호우가 상존하는 지형적·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기관리국 28명의 전문 조직이 평상시 당번제를 통해 대규모 호우경보·진도 4 이상 발생 시 즉시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민·관·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방재정보시스템 Di-sys를 활용해 기상·관측·피해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여 일원관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SNS·방재앱·긴급 문자 등 다양한 매체로 시민과 외국인에게 다국어 기반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지진, 폭설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매뉴얼과 실시간 정보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문자, 방송, 전용앱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전파하며, 정기적인 재난 모의 훈련을 실시함. 또한, ICT 기반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자율방재조직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단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재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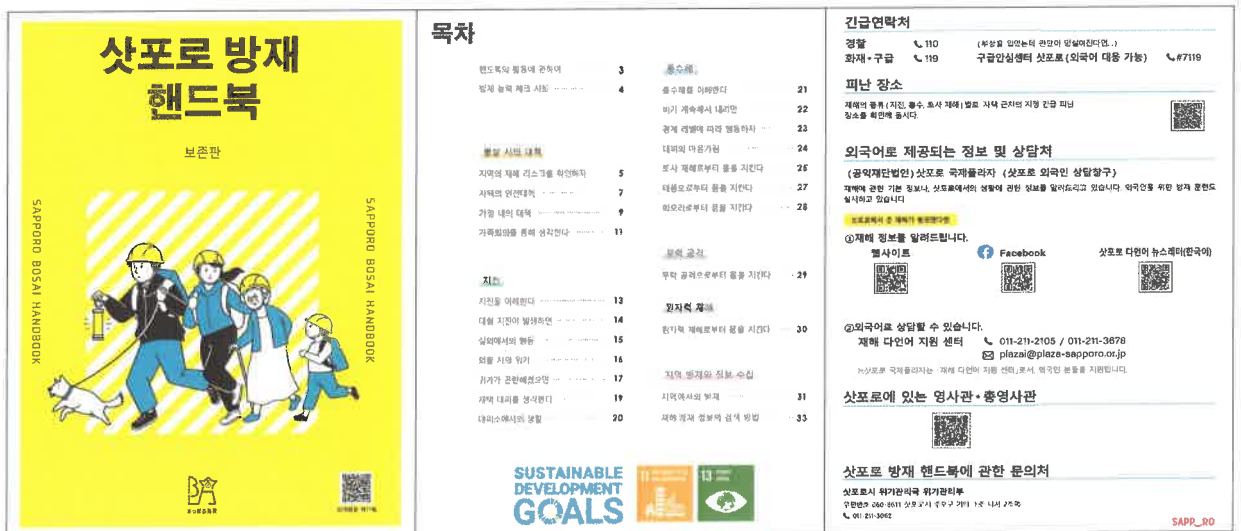
※ 삿포로시의 방재정보시스템(Di-sys)



○ 시사점

- (조직 및 운영체계) 재난 대응을 단일 부서의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위기관리국을 중심으로 시청 내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 간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였다.
- (지역사회 협력 및 시민 참여) 자율방재조직(自主防災組織)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주민 스스로가 ‘대상’ 이 아닌 ‘주체’ 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는 평상시 지역 단위의 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난 발생 시 행정의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 기업,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재난대응 교육과 모의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공동체 기반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 삿포로 방재핸드북_한국어판



-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삿포로 사례는 조직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재난 대응 핵심 기능을 가진 전문 인력이 명확한 임무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좌우함을 보여주며, 평상시의

감시·정보수집 체계가 경보 발령 즉시 즉각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재난 초기 ‘정보 공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내부 정보의 집약·분석과 외부 정보의 다중 채널 발신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은 시민 누구나 재난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위험 회피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확인하게 한다.

- (성남시 활용방안) 성남시는 삿포르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난 대응을 부서 단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괄조직 기능 강화와 부서 간 협력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ICT 기반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율방재단,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재난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기대응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폭설·집중호우 등 기후위기형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경보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행정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통합형 안전 도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사진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정비국 에도가와 하천사무소

→ 일본 국토교통성의 관동지방정비국 소속 하천관리기관

→ 일본 수도권의 대표적인 치수·방재 핵심 기관

○ 방문일시: 2025. 10. 29.(수) 14:00 ~ 16:00

○ 방문장소: 국토교통성 에도가와 하천사무소(지바현 노다시)

○ 목 적

- 수도권 하천의 도시형 홍수 대응체계 및 하천 관리정책 벤치마킹
- 대규모 지하 방수시설(수도권 외곽 방수로)의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기술적 운영 방향 연구
-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방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

○ 면 담 자: 카게야마 카즈키(유역치수과 건설전문관)

○ 주요내용

- 일본 국토교통성은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 방수로(Metropolitan Outer Area Underground Discharge Channel)’를 구축하였다. 본 시설은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 일대의 나카가와·아야세강 유역에 조성되었으며, 총연장 약 6.3km, 지하 약 50m 깊이에 위치 한다.
이 방수로는 하천 범람 시 유입되는 초과 홍수를 지하 공간으로 신속하게 저장·이송하여 하류부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배수 시설로, ‘도시형 재해 대응 인프라’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총 5개의 유입구(Shaft), 지하 배수터널(Shield Tunnel), 수압조정수조(Pressure-Adjusting Water Tank), 배수펌프장(Drainage Pump 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입구는 각 하천의 제방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경 약 30m, 깊이 약 70m 규모의 수직 구조물로 홍수 시 유입수를 지하로 흡수 한다. 유입된 물은 직경 10m의 실드 공법으로 시공된 지하 배수터널을 따라 이동하며, 총 6.3km의 구간을 통해 배수조정수조로 전달된다.

배수조정수조는 길이 177m, 폭 78m, 높이 18m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물로, 59개의 대형 기둥이 내부 수압을 분산시키며 ‘지하 신전 (Underground Temple)’ 이라 불릴 만큼 웅장한 형태를 띤다.

이 수조는 유입된 물의 흐름을 안정화시켜 펌프장의 배수 효율을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은 초당 200m³를 배수할 수 있는 대형 펌프 5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시스템 가동 시 초당 약 2,000m³의 방수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25m 수영장 한 개 분량의 물을 1초 만에 배출할 수 있는 규모로, 배수된 물은 에도강을 통해 방류된다.

- 2006년 완공 이후, 나카가와 및 아야세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과거 집중호우 시마다 발생하던 도심 침수 피해가 대폭 줄었으며,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피해액은 시설 가동 이전 대비 약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설은 단기간의 폭우에도 안정적으로 하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수문 제어, 유입량 조정, 배수펌프 운용 등 복합적인 방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술이 축적되었다.

※ 외곽방수로 설치 전·후의 침수 피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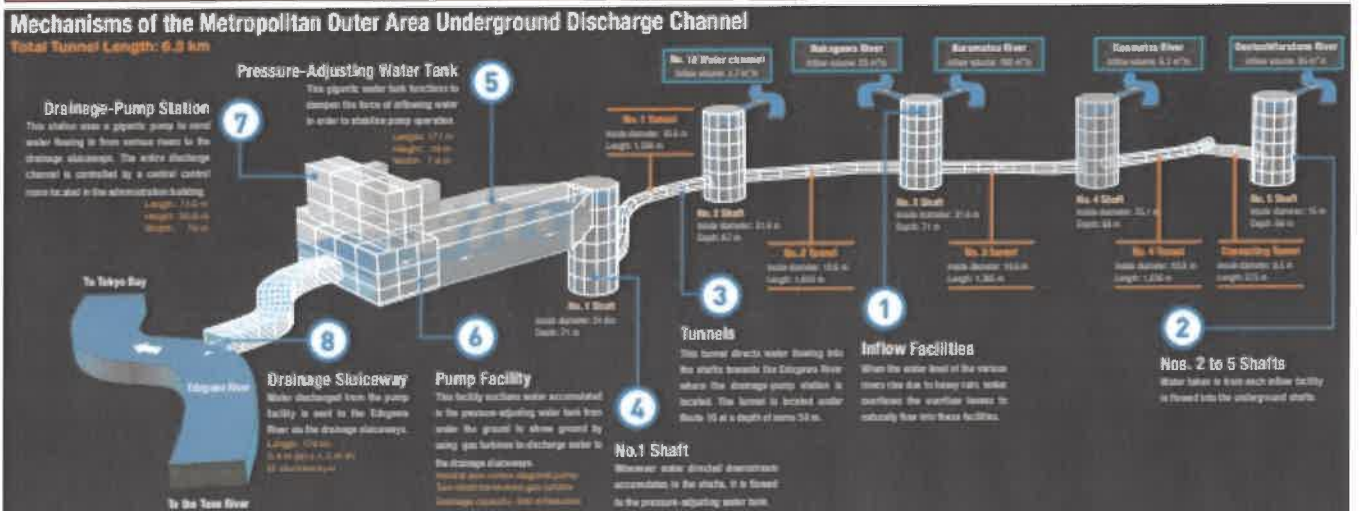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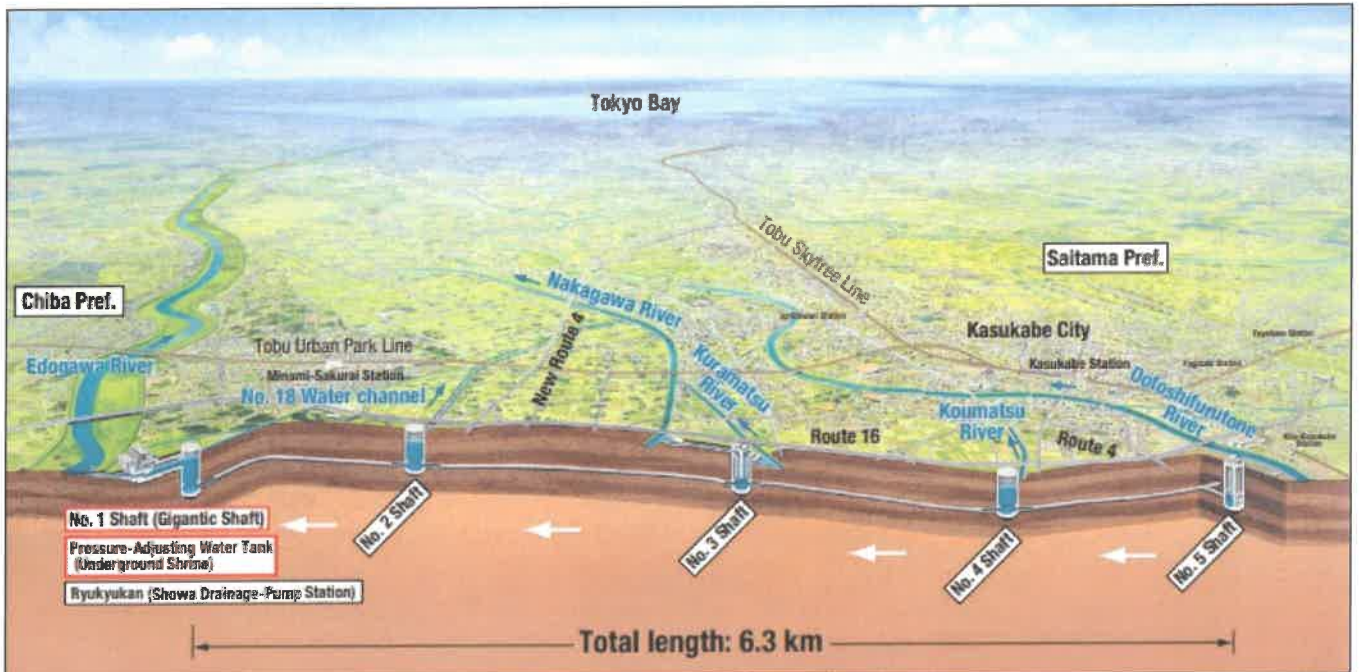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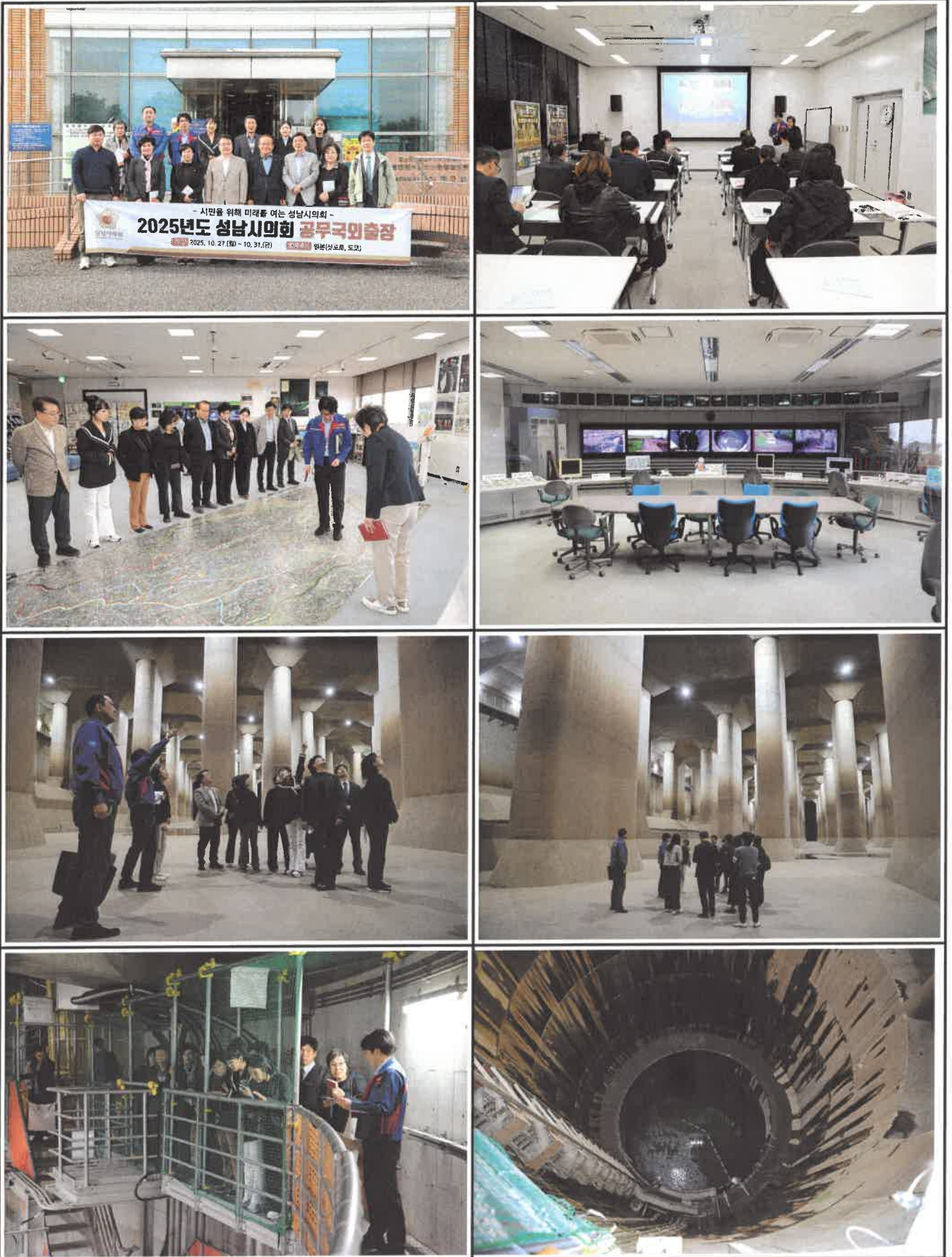
- **(지하 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방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일본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기존의 지상 배수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도시형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50m 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방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는 도심 내 한정된 공간에서도 대규모 배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방재 기능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국내 대도시 역시 지상 기반시설 중심의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지하저류·배수터널 등 다층적 방재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유역 단위의 통합적 치수관리 체계 확립)** 본 사업은 개별 하천 단위의 대응이 아닌, 나카가와·아야세강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홍수 제어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각 하천의 수위, 유입량, 배수 시점을 종합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내 역시 행정구역을 초월한 유역 중심의 방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계획·하천정비·재난관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방재시설의 다기능화 및 시민 인식 제고)**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단순한 홍수대응 시설을 넘어, 견학 프로그램 및 재난교육장으로 활용되며 시민의 방재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시설이 ‘위기 시 대응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공공자산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방재시설 또한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참여형 시설로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 (성남시 활용방안) 탄천은 상류가 용인시, 하류가 서울시와 접해 있어 집중호우 시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가 성남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남시 단독으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천 수계를 공유하는 용인시, 성남시, 서울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원화된 방재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입체적 홍수 저류시설 계획과 운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탄천 전 구간에 걸친 통합적 홍수 대응이 가능하며, 고수부지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외곽방수로 위치도 및 운영 메커니즘



○ 주요 사진



□ 도쿄도청 건설국 하천부

- 도쿄 내 하천 관련 계획, 정비, 관리, 재해예방, 환경 조성 등을 담당
- 도쿄 도내 1급 하천 92개, 2급 하천 15개 하천 관리
- 홍수 방지, 제방정비, 수변공간 환경조성 등 담당

○ 방문일시: 2025. 10. 30.(목) 09:30 ~ 11:30

○ 방문장소: 도쿄도청 건설국 제4건설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 목 적

- 빗물 저류조 등 도시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내용 현장 시찰

○ 면 담 자: 아오키 다이스케(계획과 총괄과장대리)

○ 주요내용

- 도쿄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1시간 50mm 이상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중소하천 범람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라코강 역시 과거 여러 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으로, 도쿄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정비와 함께 대규모 조절지군(調節池群)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조절지는 지상·지하·터널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하천 유역 내 홍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산·관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시라코강 유역에는 비쿠니바시 상·하류 조절지와 2017년에 완공된 시라코강 지하 조절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라코강 지하 조절지는 내경 10m,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시설로 약 21만^m의 저류 용량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지상형 조절지들과 함께 총 45만^m 이상을 저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 시에는 취수 시설을 통해 하천의 물을 조절지로 유입해 급격한 수위 상승을 억제하고, 강우가 감소하면 다시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시설은 실제 태풍 및 국지성 호우 시 수위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여 범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쿄도는 향후 시라코강 조절지를 칸다강·석신이가와 지하 조절지와 연결해 대규모 광역 저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저류 용량은 약 143만^m에서 2030년까지 약 200만^m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시간당 75mm 강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쿄도는 이러한 광역 조절지 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장시간 강우에도 연속적으로 홍수량을 흡수하는 ‘지하하천(地下河川)’ 운영 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도시 방재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시라코강 조절지의 홍수 조절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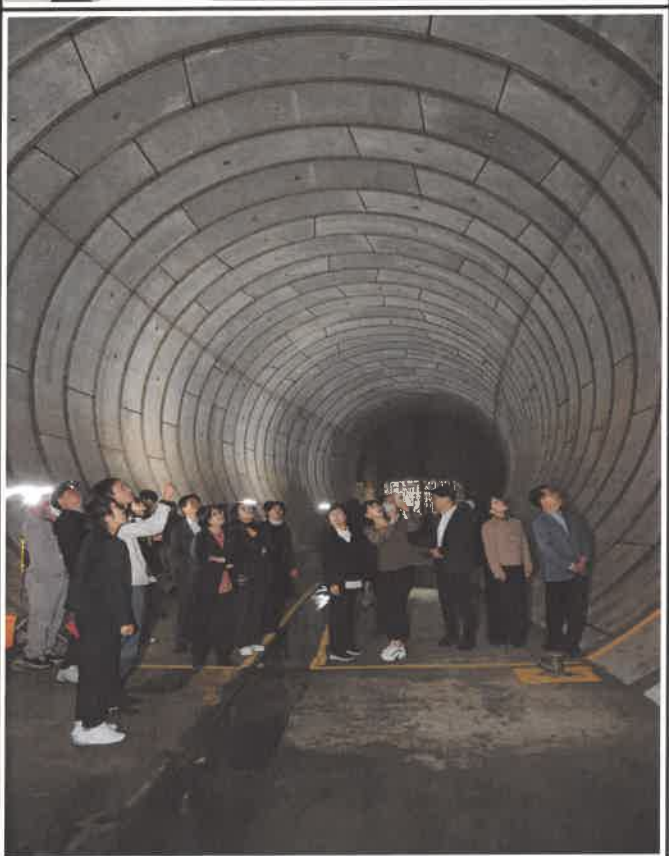


○ 시사점

-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다층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도쿄는 시라코강 유역에서 지상형, 지하형, 터널형 조절지를 함께 운영하며 홍수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단일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시설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 방재를 계획할 때 단층적 설계보다는 복합적·연계적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기후 변화 대응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 필요)** 최근 도쿄에서는 1시간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빈발하며 기존 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하 조절지와 광역 저류 네트워크 구축 등 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도시 방재 인프라가 기후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효과적 운영을 통한 실질적 방재 성과 확보)** 시라코강 지하 조절지는 실제 호우 시 하천 수위를 억제하고 범람 피해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강우 상황에 맞춰 취수·방류를 조절하는 운영 방식이 시설 효용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홍수 방재 시설은 설치 자체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실질적 방재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남시 활용방안)** 성남시는 탄천 고수부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 조절지 기반 홍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첫 단계로, 고수부지에 지상형 저류지를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하면서,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의 수위를 낮추는 일차적 저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 호우 강도가 지상형 저류지 용량을 초과할 경우, 지하 저류시설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하천 수위를 흡수하고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극심한 호우 상황에서는 터널형 저류시설을 통해 대규모 홍수량을 장기간 분산 저장함으로써 탄천과 고수부지 주변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운영체계는 하천 수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강우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방재 전략이 될 수 있다.

○ 주요 사진



□ 아크 힐즈 _ 1986년 준공

- 1986년 완공된 이래 비즈니스와 생활, 문화가 공존하는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옴.
- 일본 최초의 대규모 민간 재개발 사업 중 하나로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줌.

○ 방문일시: 2025. 10. 30.(목) 15:00 ~ 16:00

○ 방문장소: 아크 힐즈 일대(도쿄도 미나토구)

○ 목 적

- 도심 내 노후업무지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아크 힐즈 사례 조사
- 업무·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도시복합화 개발 및 운영전략 벤치마킹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심형 문화·상업시설 운영모델 파악
- 아크힐즈 구성_모리빙달



출처:2025 도시와공간포럼_대한경제TV

○ 주요내용

- 아크 힐즈는 모리빌딩이 도쿄 미나토구의 노후 업무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복합도시재생 프로젝트로, 1986년 완공 이후 도쿄 내 대표적 복합형 도시단지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피스, 주거, 호텔, 콘서트홀, 상업시설, 옥상정원 등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업무 중심의 공간을 문화·생활공간과 결합함으로써 도심의 24시간 활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생활·업무 패턴을 창출하였다.
- 아크 힐즈는 단순한 부동산개발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단지를 목표로 단지 내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크 힐즈 마켓, 예술 전시,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과 직장인 모두가 어우러지는 도시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와 보행친화적 동선계획, 에너지 절감형 설비를 통해 친환경적 도시운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롯폰기 힐즈 _ 2003년 준공

- 모리 타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복합 시설로, 17년이 걸린 롯폰기 6가의 재개발 사업 중 하나
- 주거, 문화, 상업, 엔터테인먼트의 콤팩트시티 지향

○ 방문일시: 2025. 10. 30.(목) 16:00 ~ 17:00

○ 방문장소: 롯폰기 힐즈 일대(도쿄도 미나토구)

○ 목 적

- 대규모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사례 조사
- 문화·상업·업무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공간의 조성 및 운영 방식 벤치마킹
-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개발 전략 파악
- 롯폰기 힐즈 구성_모리빙달



출처:2025 도시와공간포럼_대한경제TV

○ 주요내용

- 롯데몰 힐즈는 모리빌딩이 도쿄 도심의 노후 상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약 11.6ha 부지에 오피스(모리타워), 주거시설, 상업시설, 영화관, 미술관, 호텔, 공원 등을 통합 조성하였다. ‘삶, 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도시(Live, Work, Play)’를 비전으로 하여, 업무·문화·여가가 한 공간 안에서 순환되는 24시간 활력형 도시공간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공공보행통로·옥외광장·도심공원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시형 단지를 실현하였다.
- 롯데몰 힐즈는 단순 부동산개발을 넘어 모리미술관, 도쿄 시티뷰 전망대 등 문화시설과 세계적 브랜드 상업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쿄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단지 내 에너지 관리·보안·교통 흐름 등을 통합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도시단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지속적인 문화 행사 개최 및 공공공간 개방을 통해 도시와 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복합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 아자부다이 힐즈 _ 2023년 준공

- 34년 장기간 준비한 초대형 행정·민간·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
- 초고밀도 개발을 활용한 저층 녹지공간 확보(수직정원도시 컨셉)
- 토마스 헤더워크 저층 및 조경 설계, 부지면적의 약 30% 녹지로 조성

- 방문일시: 2025. 10. 30.(목) 14:00 ~ 15:00
- 방문장소: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도쿄도 미나토구)
- 목 적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민관협력형 복합개발 사례 조사
 - 친환경·스마트 인프라를 접목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벤치마킹
 - 지역 상생을 유도하는 복합문화·상업시설 운영관리체계 파악
 - 아자부다이 힐즈 구성_모리빙달



출처:2025 도시와공간포럼_대한경제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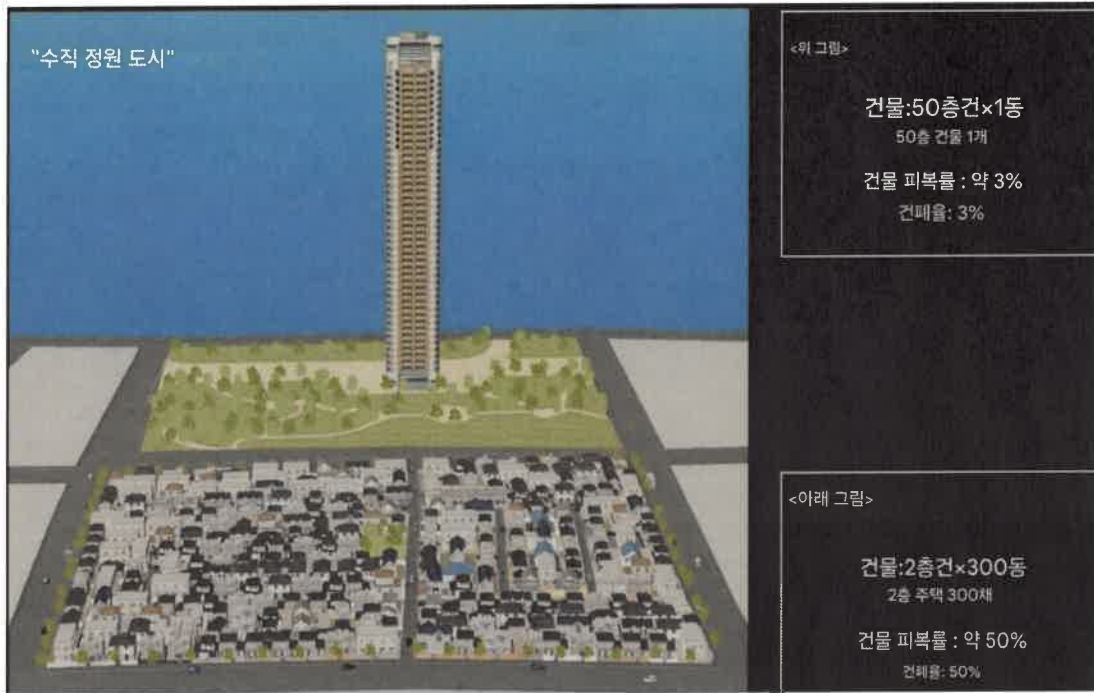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아자부다이 힐즈는 도쿄 중심부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모리빌딩이 약 34년에 걸쳐 추진한 초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전체 부지 약 8.1ha에 걸쳐 주거(1,400세대), 업무(오피스 21만㎡), 상업,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통합 조성된 도시 속의 마을 형태이며, 개발 과정에서 공공(도쿄도 및 미나토구)과 민간(모리빌딩)이 협력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공공보행통로 조성, 방재·환경 인프라를 공동 구축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 단지 전체의 3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고, 건물 간 입체적 보행데크를 연결하여 차량 이동을 최소화한 ‘보행 중심형 단지’를 실현하였으며, 또한, 자가 열병합발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열 재활용 및 우수(雨水) 재이용 설비를 갖춰 도시 단위의 탄소중립형 운영을 추진 중이다. 최근 AI 기반의 스마트 보안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시사점

-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세 가지 사례 모두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민간협력 프로젝트로, 공공(도쿄도, 미나토구)과 민간(모리빌딩)이 공동으로 기반시설, 공공보행로, 녹지, 방재·환경 인프라,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한 사업이다.
공공에서는 도시계획 승인과 기반시설 정비를 담당하고, 민간은 건축공사 및 운영·관리, 문화 콘텐츠 제공을 맡아 도시재생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 **(고밀도 복합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 한정된 부지에서 주거, 업무, 상업, 문화공간을 동시에 수용하는 고밀도 복합개발과 수직정원도시의 입체적 녹지 설계를 통해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하였다.

※ 모리빌딩의 수직 정원 도시 개념



출처:2025 도시와공간포럼_대한경제TV

- **(도시브랜딩 전략의 방향성)**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를 결합하여, 상업 중심의 재개발이 아닌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되며, 업무·문화·여가 기능을 통합해 24시간 활력이 유지되는 도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도시경쟁력·관광자원·시민생활이 선순환하는 도시브랜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보행로와 열린광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시민 접근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성남시 활용방안)** 성남시는 향후 백현마이스 및 역세권 정비 시, 주거·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직정원도시 개념의 입체적 설계를 적용하여 제한된 부지에서도 충분한 녹지와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 주요 사진



□ 국회의사당

- 1936년 11월 완공되었으며, 좌우대칭형 건물로 정면을 향하여 좌측에 중의원, 우측에 참의원이 배치되어 있음.
- 국회의사당을 짓는 데 스테인드글라스, 자물쇠, 우체통, 기본적인 보강재 몇몇을 제외하면 전부 일본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사용

○ 방문일시: 2025. 10. 31.(금) 09:30 ~ 11:30

○ 방문장소: 도쿄 국회의사당(도쿄도 지요다구)

○ 목 적

- 일본 중앙정부의 입법기관 운영체계 및 의회시설 관리방식 조사
-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구성·정보시스템 운용사례 벤치마킹
- 시민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의회청사 운영 및 개방정책 파악

○ 주요내용

- 일본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원연구실, 언론센터 등 주요 의정공간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회의 운영 및 행정지원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회사무국이 회의 일정, 의안 관리, 의사진행보조, 통계자료 제공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연구와 발언 준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각 회의실 내에는 전자표결 시스템과 실시간 속기·기록 장비가 구비되어 의정활동의 디지털 기반 행정지원 체계가 정착되어 있었다.
- 의사당은 중앙 돔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 구조로 설계되어, 건축 자체가 국가 권위와 민주주의 상징성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의원동과 본회의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회의, 접견, 언론 대응이 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동선에는 일본 근현대 정치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조성되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정치 문화의 상징 공간이자 시민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 의사당은 일반 공개 외에도 특정 방문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 공무원이 의회운영 및 입법절차, 역사적 사례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특히, 의회 내 언론홍보센터와 자료전시실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과 학생이 의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정치에 대한 시민 친화적 접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 일본 국회 구성

국회 -헌법상의 구성-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이듬해인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월 20일에 제1회 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일본 제국 헌법하에서 1890년에 개설된 이래 약56년간 계속되었던 구제국 의회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회가 탄생 하였습니다.

삼권분립

일본국 헌법은 국회, 내각, 법원의 세 독립 기관이 상호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위

국회는 헌법 제41조에서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됩니다. 또한,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있어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가 있을 시에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각의 조직과 존속의 기초를 국회에 두는 제도를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국회의 구성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며, 양원 모두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議員)으로 조직됩니다. 각 의원(議院)에는 본회의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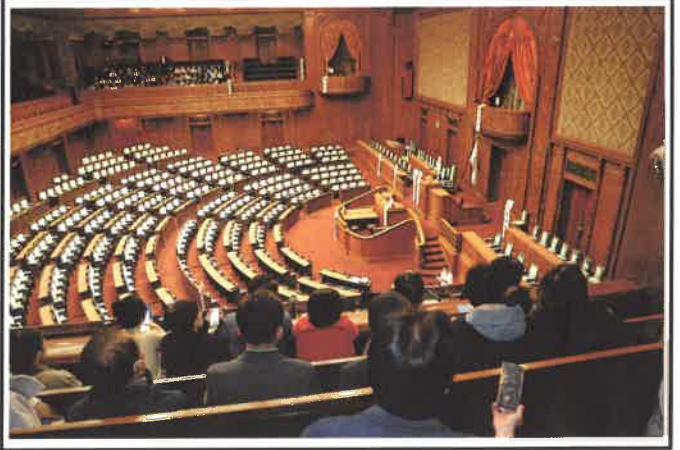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 경수 등 비교

| 중의원 | | 참의원 |
|-------------|------|-------------|
| 465명 | 경수 | 248명 |
| 4년 | 임기 | 6년 |
| 해산하면 지위를 잃음 | | 3년마다 불인 재선거 |
| 18세 이상 | 선거권 | 18세 이상 |
| 25세 이상 | 피선거권 | 30세 이상 |
| 소선거구 288명 | 선거구 | 선거구 148명 |
| 비례대표 176명 | | 비례대표 100명 |
| 있음 | 예산 | 없음 |

○ 시사점

- **(행정지원의 전문화와 정보통합체계 구축의 중요성)** 국회사무국의 일원화된 행정지원 체계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요소로, 회의운영·자료관리·의안추적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의원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며, 이는 성남시의회가 향후 회의록 전산화, 상임위별 전문위원 정보지원 강화 등 행정지원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데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된다.
- **(시민에게 열린 상징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국회의사당은 의정활동의 공간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공공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개방형 전시와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입법활동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성남시의회 또한 시민참관 확대, 의정역사 홍보관 조성 등 열린 의회구현을 위한 공간 재구성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정치행정의 품격과 시민 신뢰 제고)** 일본 국회의사당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건축미와 운영방식을 통해 국가적 상징성과 민주주의의 품격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었고, 이는 지방의회도 물리적 시설을 단순 행정공간이 아닌 지역 민주주의의 상징적 중심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하며, 성남시의회가 향후 의정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간과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성남시 활용방안)** 성남시는 국회의사당의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의정지원의 디지털화와 시민참여형 의정공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안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 청사를 시민이 참여·견학할 수 있는 열린 의정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시민참여형 지방의회를 구현해야 한다.

○ 주요 사진



Ⅲ 총 평

□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모델 탐색

- 성남시의회는 일본 도쿄 및 삿포로 지역의 주요 행정기관과 도시개발·방재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선진 도시정책 및 의정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시민참여형 의정운영 등 성남시 현안과 연계된 구체적 모델을 탐색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 환경·방재·복합개발 분야의 선진사례 확인

- 삿포로에서는 모에레누마 공원을 통해 폐매립지를 예술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도시 브랜딩을 동시에 실현한 모범적 모델로 평가되었다. 눈대책실과 위기관리국에서는 ICT 기반 제설관리시스템과 시민 누구나 재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방재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도시관리의 효율화 필요성을 재인식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성의 에도가와 하천사무소와 도쿄도청 하천부 방문하여, 이상기후 및 극한 호우에 대비한 유역 단위 통합치수정책과 도심지 부지 확보 제약을 극복한 입체적 홍수 대비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아크·롯데기·아자부다이 힐즈 등 도심복합개발 지구에서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사례와 함께, 민간 개발사가 건설 이후 운영·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서, 이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 의정운영의 효율성과 개방성 강화 방향 제시

- 도쿄 국회의사당 방문을 통해 일본 입법부의 회의운영, 디지털 행정 지원체계, 시민개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 행정조직의 지원과 전산화된 정보관리체계는 효율적 의정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었으며,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의정지원의 전문화·디지털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실현이 지방의회 경쟁력 제고의 핵심임을 시사하였다.

※ 첨부자료 _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